

01 교회소식

하나로 이어진 사랑의 공간에서

랜선을 통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질병이 치료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등 응답과 축복이 넘쳤던 킨샤사만민교회 은사집회.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심은 이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됐음을 증거한다.

03 기획특집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기록 차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전달자가 달리 전하는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함으로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하셨다.

04 간증

“주 안에서 아니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 의지하니 치료 불가능했던 딸이 호전을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오랜 습관이 고쳐진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7호 2021년 7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은혜의 단비, 성령의 불로 충만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



지난 6월 27일 주일 저녁 8시(현지 시각 낮 12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가 줌(zoom)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킨샤사만민교회 본 성전은 물론 창구 지성전에서든 은혜를 사모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킨샤사만민교회 찬양팀 특송이 있었는

데, 전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 함으로 감동을 더했다. 강사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은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제목의 설교 후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로써 말라리아, 중풍, 고혈압, 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 탈장, 무기력증, 각종 통증, 신장질환 등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등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별히 마징고 글로디 치코 성도(26세, 남)는 주술을 행했던 것이 온전히 회개되지

않아 폐결핵과 치질을 심하게 앓아왔으나 이번 은사집회를 믿음으로 준비하여 기도받은 뒤 치료받아 가장 먼저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 외에도 많은 성도가 단으로 나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몽골만민교회에 방역용 마스크, 의복 등 전달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총연합회와 가나안선교회연합회의 후원으로 몽골만민교회에 방역용 마스크와 의복 등을 전달하였다. 이에 몽골만민교회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후원 물품들을 지난

6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성도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타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도 전달해 주님의 사랑을 나눴다. 후원 물품 중 노트북은 예배용으로 필요한 성도들과 교회 행사 시 상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담임 발저리 푸를 선교사는 “마스크와 깨끗하게 정돈된 옷들을 보며 그 사랑과 정성에 성도님들이 행복해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온라인 성찬식

우리 교회는 7월 4일,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GCN 방송(www.gcntv.org)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성찬식을 가진다. 대예배는 ‘열매’(살전 5:16~18)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로 드러지고, 저녁예배 시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설교 후 성찬식을 집례한다.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랜선예배에 동참한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며,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성찬식에 임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십자가의 처형(2)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 19:33~34)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를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과 연약함, 가난, 그 밖의 온갖 재앙에서 놓임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십자가 고난의 섭리를 밝히 알게 되면 구세주를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쏟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그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기에 저주 받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지요(요 19:31).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게 되면 더 이상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므로 빨리 숨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웠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이 확인되었기에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다 그 모든 뼈를 보호 하심이여 그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에도 출애굽 당시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먹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지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요

1:29). 따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며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신 섭리

요한복음 19장 33~34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은 상처와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피로 처참한 모습이셨고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사람이 참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빌 2:6~8).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시며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했으며 제자들이 쉴 때에도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선만 행하셨는데도 많은 유대인에게 갖은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이는 사람의 악함 때문이며, 더군다나 죽은 줄 알면서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 얼마나 악에 악을 더한 모습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사람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지요.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로 이뤄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셨고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도 느끼셨지요(마 4:2, 8:24 ; 막 3:20 ; 요 4:6).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증하기 위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육신을 가진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므로 자녀들 역시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라고 하시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어떠한 죄도 범치 아니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같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었지만 진리대로만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거룩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흠과 티가 없

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흘리신 물은 영생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만큼 죄악을 벗고 진리로 채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쏟으신 피와 물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와 물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피와 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셨기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값없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기록의 차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함께 있던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여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 편 강도는 오히려 다른 편 강도를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기록돼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기록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의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관해 매우 많은 양을 함축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든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다 보면 수천 권이 되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비디오가 있어서 어떤 사건의 현장을 촬영해 놓으면 후세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도구가 없으니 아무리 중요한 장면이라도 사진 한 장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단지 글로 기록해 놓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중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사와 표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서까지 섬기며 붙좃았던 사람도 있었지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주셨는데, 이때 모인 남자만 해도 5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눅 9:12~17). 그러니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그 밖에 구경하러 온 사람 등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에워싸므로 로마 병사들은 군중이 더 이상 밀려들지 못하도록 양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막았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선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 주변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한 많은 군중이 모여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한 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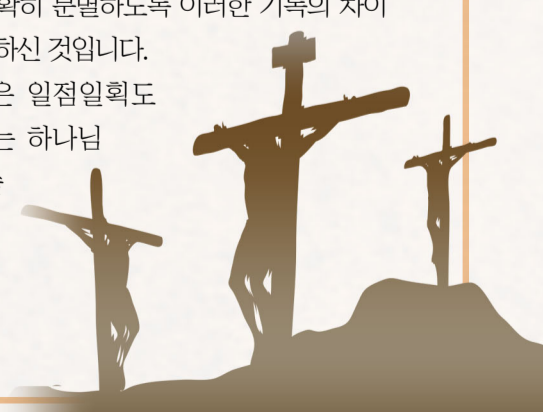
그토록 소란스러운 상황이니 그 강도 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반대편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 쪽을 향해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반대편 강도를 보고 책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중앙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지요.

이처럼 다른 편 강도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한 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전달자가 달리 전하는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의 정황을 더욱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후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몸에 배어있던 나쁜 습관이 한순간에 고쳐졌습니다”

방영숙 집사
(52세, 3대대 20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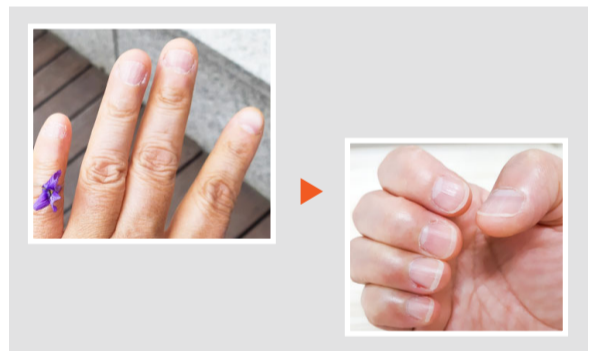


저는 어려서부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 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 해지면 증세가 더욱 심해졌지요. 회사에서 영업실적을 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더 심해졌습 니다. 그러다 보니 손톱 모양도 이상해지고 심지어 피가 날 때도 있어서 이 습관을 고쳐보려 했지만 하루도 못가 실패하곤 하였지요.

인조 손톱도 붙여보았지만 손톱이 너무 짧아 붙이기 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붙여도 무의식적으로 물어뜯으 니 그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톱을 길러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더니 이후로 손톱을 물어뜯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뿐더러 어느새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제까지 손톱을 한 번도 기를 수가 없었던 저로서는 지금 두 달 가까이 손톱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기만 합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육 간에 너무나 무지했던 것을 깨달으며, 그 동안 읽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고 죄송했습니다.

평소 당회장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들도 떠오 르면서 저 같은 사람도 늘 깨우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 였지요.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통해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저의 의지로는 고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까지 고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치료 불가능했던 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계세요!”

핑키 성도 (40세, 인도 자하르칸드 주)

저의 딸 마히마는 2018년 당시 생후 9개월 때 폐렴 으로 인해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입 원해 있으면서 폐렴은 치료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오게 되었지요. 의사 선생님 께서는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고, 물리 치료 정도 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점차 힘을 잃어 약해져 갔고 세 살이 되어 도 앉지도, 걷지도 못할뿐더러 제가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는 아이를 위해 기도받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환자 기도’를 검색하였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눈에 띄었고, 기 도를 받은 후 그 영상에 적혀 있 는 ‘GCNTV HINDI’ 사무실 로 전화를 하였지요. 그곳 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 을 알아 응답받을 수 있 도록 친절히 상담해 주 었습니다.

이후 저는 유튜브 채 널 ‘GCNTV HINDI’를 통 해 예배를 드리며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이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점차 이 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우쳐졌지요.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설교도 두 차례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 제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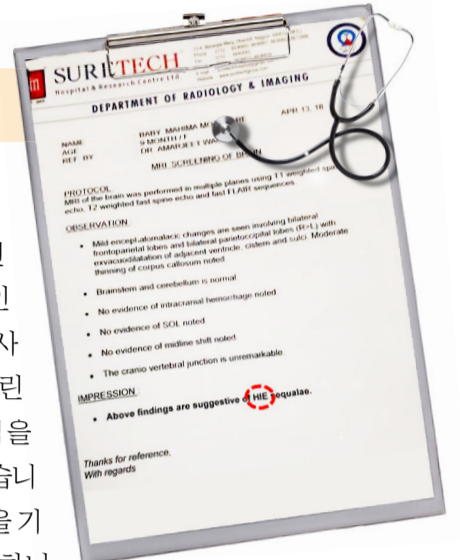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지 않으니 제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 투고 가정에 화평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재록 목사 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지,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러 던 2021년 ‘인 도 랜선 은사 집회’가 열린 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 니다. 응답받을 기 회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고, 3일 금식을 하며 사모함으로 마음 다해 준비했지요.

3월 14일 주일, 저는 유튜브 채널 ‘GCNTV HINDI’ 를 통해 ‘인도 랜선 은사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날, 딸은 아침부터 몸에 열이 있었습니다. 감사이신 이복님 원장님(만민기도원)께서 권능의 손 수건(행 19:11~12)으로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에는 제 품에서 자고 있 었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딸은 열이 내렸고, 깨어나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저 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딸에게서 많 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과 발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많이 움직이지 못 했는데, 손과 발을 아주 잘 움직였 지요. 그리고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 었던 아이가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저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며, 혼자 일어설려고도 하고, 웃기도 했 습니다. 이후 딸은 활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제 믿음은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제 믿음이 성장할수록 딸이 온전히 걸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금식 과 기도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 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영상 판독서
저산소성 손상에 의한 뇌변성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대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